

# 한 후보검증 공방 조기 가열되나

# “480만 장애인에 대못질”

## 범여권, 이명박 ‘낙태 발언’ 맹비난

한나라당이 '경선 룰' 갈등으로 인한 내용을 제대로 수습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검증공방으로 돌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지역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이 “이제부터는 검증”이라며 검증의 칼을 다시 뽑을 때 세를 갖추고 있는데 맞서 이 전 시장 측은 “검증을 빗잡아 네거티브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음전의지”를 다지고 있다.

검증공방이 조기에 격화될 경우 경선관리위원회 및 검증위원회 구성, 경선 룰 세부규칙 마련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양측간 대치도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어 경선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16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은 국민의 재산과

## 李 “네거티브 용납 안해”朴 “이제부터는 검증”

### 경선안 세부규칙 대치 예고... 경선일정 지연될 듯

생명, 나라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면서 “저부터 철저하게 검증해 달라고 제안하겠다”고 말해 검증론에 불을 지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의 국가관·정책성·정책공약·도덕성·건강 등 모든 것을 검증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측근인 김무성 의원은 “국민과 당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검증하면 자꾸 도덕성 얘기만 하는데 건강과 정책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검증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경선과정의 대부

분이 검증하는 절차라고 봐야 한다”면서 “현재 이 전 시장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잇달리는데 나는 국민을 속이는 공약으로 본다. 캠프에서 말리더라도 개인 자격으로라도 문제점을 끌까지 파헤쳐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진수희 의원은 “대운하 공약에 대해 의도적으로 몰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면서 “박 전 대표 측에서 검증을 빌미로 시중에 나도는 의혹을 퍼뜨리며 후보 흠집내기를 계속할 경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해 세 번째 지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운명의 문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회창 전 총재가 검증이 안 돼 대선에서 진 것이 아니다. 저쪽(범여권)의 사실왜곡과 조작, 네거티브로 인해 패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네거티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강 대표가 당최신 작업의 일환으로 경선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기로 한 ‘네거티브감시위원회’ 구성 과정을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할 ‘경선관리위원회’가 이르면 22일경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관리위원장은 이미 박관용 전 국회 의장이 내정된 상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은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낙태론) 반대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면,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장애인에 비하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얄리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80만 장애인을 울리고 가슴에 대못질을 한 발언”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철학적 천박함을 엿보게 해 참을 수 없다. 이 전 시장의 생각에는 휴머니즘이 발견되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구의 부대변인도 “장애인의 생명을 짓밟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재활다운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이 전 시장은 점차 ‘재활다운 후보’로서 유감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지도자로서 언행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자신이 한 말의 의미와 무게조차 가능하지 못한다면 지도자의 자



16일 서울 여의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사무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이 전 시장의 ‘장애아 낙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질 중에 가장 큰 것을 곁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도 발언과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8개 장애인 단체 소속 20여명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서를 시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시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시장측은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낙태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도 소속 20여명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서를 시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온 추미애**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한 추미애 전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전남대에서 '21세기 한국의 진로와 민주세력의 비전'이란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추 전 의원은 특강에서 “기득권 포기나 통합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며 “분열과 국정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기득권 포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의원은 17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 우리당 ‘리모델링론’ 술술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특정인사 신당참여 배제론’에 발끈한 열린우리당 조·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배제론에 굴복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승부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리모델링론이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고 2·14 정당대회의 대통합 결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경론을 고수하고 ‘제3차대’ 형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에 잔류해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선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

여기에 친노그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세

상과 노사모의 재결집을 양측으로 구심력을 키우고 있는 점은 리모델링론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다. 조·재선 의원들의 ‘리모델링론’이 격양된 상태에서 나온 것인 데 비해 친노그룹의 움직임은 훨씬 조속적이다.

지난달 27일 출범식을 가진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전국단위 지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세를 키우고 있고, 노 대통령 팬클럽인 노사모가 내달 16일부터 1박2일간 김해 봉화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총회를 갖고 결속을 다진다.

당 복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이 정동영, 김근태 두 전직 의장의 기득권

## 조·재선의원, 박상천 ‘배제론’에 반발

### 일부선 “전대 결정 부정 행위” 반대

포기와 백의중군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우리당 존속 및 강화를 전제로 내부 세 대결에 대비한 사전 정치 작업의 성격이 짙다.

리모델링을 겨냥한 이 같은 흐름에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이상호 의원은 “리모델링 주장은 전대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최고 의결기구인 전대에서 대통합신당을 결정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박상천 대표의 특정인사 배제론이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박상천 때리기”를 계속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언행 조심하라”

### 이해찬, 유시민에게 경고

이해찬 전 총리가 최근 유시민 복지 장관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16일 “이 전 총리가 최근 유 장관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통합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분간 복지부 일에 전념하면서 자중하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장관이 최근 자신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얹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전 총리를 만나고 난 이후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최근 당 친노문제를 놓고 친노, 반노 의원 간 대립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떠날 분들은 떠나라. 비례표 의원들도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말하며 사퇴 의사를 드러내자,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서도 사석에서 백의중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말이 나올 때쯤은 논란을 낳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염동연 “제이유로부터 한푼도 안 받았다”

### 주수도 전 회장 발언 보도 부인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각종 구설수에 시달려왔던 염동연 의원이 이번에는 다단계계업체인 제이유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또 다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한국일보의 16일 “주수도 제이유 그룹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염동연 의원을 비롯 전·현직 의원, 전 청와대 행정관, 언론사 간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이유로부터 어떠한 청

탁을 받은 적도, 단 한푼의 금품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또한 “이러한 보도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폭력이며 언론에 의한 인격적 살인행위”라며 “해당 언론사와 취재 기자에 대해 모든 민중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의 핵심 측근은 “친노 직제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 때마다 관련설이 제기됐으나 모두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검찰 측에 사실 관계를 문의했으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락잔금대출 전문은행**

경락잔액의 100%까지, 간단한 심사로 OK!

법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2개의 점, 2시간 비박

순천지점 ☎ 061)724-3399    상 업 저 축 은 행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b>[아파트]</b>					
2006타경 33003	1	북구 운양동 232 103동 1층 101호 84.98㎡	아파트	83,000,000	임차인있음[매각 시 소유권 이전세액 부담]
2006타경 52493	1	서구 금호동 739-2 우미아파트 103동 제1층 103호 95.79㎡	아파트	115,000,000	최선순위 전세권 지[매각력 있음]
2006타경 52721	1	남구 백운동 40-1 102동 제5층 511호 84.9㎡	아파트	83,000,000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06타경 10543	1	북구 용전동 1163-6 397㎡	전	163,935,000	일괄매각
2006타경 53519	1	남구 남내동 14-4 112㎡	대	39,537,680	일괄매각, 현황상 잔여부 도로임
2006타경 30639	1	북구 용병동 1414-6 21㎡ 6.4㎡	대	335,762,240	일괄매각, 제시외 있음[매각물건명세서와 같음]
2007타경 12669	1	총 1414-6 1층 129.30㎡ 2층 129.30㎡ 3층 121.90㎡ 4층 95.20㎡ 제시외 창고 등 52.98㎡	3, 주차장, 주택	335,762,240	일괄매각, 제시외 있음[매각물건명세서와 같음]
<b>[대지/임야/전답]</b>					
2004타경 55924	1	광산구 도덕동 137-2 1344㎡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지목]	전	32,2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5타경 11693	1	영광군 불암면 금계리 산24 10909㎡ [분묘지외 성립여지 있음]	임야	9,818,100	지상에 분묘 수기 있음
2	2	동호 305-1 471㎡	대	133,862,000	일괄매각, 목록3지 상에 매각의 제시외 건물있음.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3	3	광산구 오운동 645 2873㎡	대	43,09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4	4	영광군 불암면 금계리 산24 10909㎡ [분묘지외 성립여지 있음]	임야	9,818,100	지상에 분묘 수기 있음
5	5	동호 384-1 639㎡	대	14,18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6	6	동호 391-1 9㎡ [도로로 편입]	도로	5,404,200	일괄매각, 목록7,9지목 있음
7	7	동호 391-2 878㎡	전	5,404,2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8	8	동호 391-3 100㎡	전	5,404,2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9	9	동호 404-1 743㎡	대	5,498,100	일괄매각, 목록4지 상에 매각의 제시외 건물있음.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10	10	동호 404-2 55㎡	도로	5,498,100	일괄매각, 목록4지 상에 매각의 제시외 건물있음.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05타경 15862	1	월곡동 북면 원리 396-7 1050㎡	대	427,774,500	일괄매각, 목록1,2 동호 398-1 1373㎡, 동호 400-2 2069㎡, 동호 416-1 1359㎡, 동호 416-2 314㎡, 동호 419-1 1031㎡, 동호 419-2 307㎡, 동호 420 893㎡, 동호 422-1 1299㎡, 동호 424-1 1131㎡, 동호 425 972㎡, 동호 426 940㎡, 동호 428 1200㎡, 동호 429-1 615㎡, 동호 432-1 1289㎡, 동호 432-2 202㎡, 동호 433 1230㎡, 동호 434 3203㎡, 동호 439-4 1065㎡, 동호 439-5 340㎡, 동호 439-10 267㎡, 동호 439-13 419㎡, 동호 439-14 161㎡, 동호 439-15 372㎡, 동호 439-16 256㎡, 동호 439-17 1094㎡, 동호 439-16 1103㎡, 동호 441 667㎡, 동호 442-1 1267㎡, 동호 442-4 1067㎡, 동호 442-5 513㎡, 동호 445-2 932㎡, 동호 446-2 246㎡, 동호 447 665㎡, 동호 448 2175㎡, 동호 516-1 3769㎡, 동호 516-2 3769㎡, 동호 516-3 3769㎡, 동호 516-4 3769㎡, 동호 516-5 3769㎡, 동호 516-6 3769㎡, 동호 516-7 3769㎡, 동호 516-8 3769㎡, 동호 516-9 3769㎡, 동호 516-10 3769㎡, 동호 516-11 3769㎡, 동호 516-12 3769㎡, 동호 516-13 3769㎡, 동호 516-14 3769㎡, 동호 516-15 3769㎡, 동호 516-16 3769㎡, 동호 516-17 3769㎡, 동호 516-18 3769㎡, 동호 516-19 3769㎡, 동호 516-20 3769㎡, 동호 516-21 3769㎡, 동호 516-22 3769㎡, 동호 516-23 3769㎡, 동호 516-24 3769㎡, 동호 516-25 3769㎡, 동호 516-26 3769㎡, 동호 516-27 3769㎡, 동호 516-28 3769㎡, 동호 516-29 3769㎡, 동호 516-30 3769㎡, 동호 516-31 3769㎡, 동호 516-32 3769㎡, 동호 516-33 3769㎡, 동호 516-34 3769㎡, 동호 516-35 3769㎡, 동호 516-36 3769㎡, 동호 516-37 3769㎡, 동호 516-38 3769㎡, 동호 516-39 3769㎡, 동호 516-40 3769㎡, 동호 516-41 3769㎡, 동호 516-42 3769㎡, 동호 516-43 3769㎡, 동호 516-44 3769㎡, 동호 516-45 3769㎡, 동호 516-46 3769㎡, 동호 516-47 3769㎡, 동호 516-48 3769㎡, 동호 516-49 3769㎡, 동호 516-50 3769㎡, 동호 516-51 3769㎡, 동호 516-52 3769㎡, 동호 516-53 3769㎡, 동호 516-54 3769㎡, 동호 516-55 3769㎡, 동호 516-56 3769㎡, 동호 516-57 3769㎡, 동호 516-58 3769㎡, 동호 516-59 3769㎡, 동호 516-60 3769㎡, 동호 516-61 3769㎡, 동호 516-62 3769㎡, 동호 516-63 3769㎡, 동호 516-64 3769㎡, 동호 516-65 3769㎡, 동호 516-66 3769㎡, 동호 516-67 3769㎡, 동호 516-68 3769㎡, 동호 516-69 3769㎡, 동호 516-70 3769㎡, 동호 516-71 3769㎡, 동호 516-72 3769㎡, 동호 516-73 3769㎡, 동호 516-74 3769㎡, 동호 516-75 3769㎡, 동호 516-76 3769㎡, 동호 516-77 3769㎡, 동호 516-78 3769㎡, 동호 516-79 3769㎡, 동호 516-80 3769㎡, 동호 516-81 3769㎡, 동호 516-82 3769㎡, 동호 516-83 3769㎡, 동호 516-84 3769㎡, 동호 516-85 3769㎡, 동호 516-86 3769㎡, 동호 516-87 3769㎡, 동호 516-88 3769㎡, 동호 516-89 3769㎡, 동호 516-90 3769㎡, 동호 516-91 3769㎡, 동호 516-92 3769㎡, 동호 516-93 3769㎡, 동호 516-94 3769㎡, 동호 516-95 3769㎡, 동호 516-96 3769㎡, 동호 516-97 3769㎡, 동호 516-98 3769㎡, 동호 516-99 3769㎡, 동호 516-100 3769㎡, 동호 516-101 3769㎡, 동호 516-102 3769㎡, 동호 516-103 3769㎡, 동호 516-104 3769㎡, 동호 516-105 3769㎡, 동호 516-106 3769㎡, 동호 516-107 3769㎡, 동호 516-108 3769㎡, 동호 516-109 3769㎡, 동호 516-110 3769㎡, 동호 516-111 3769㎡, 동호 516-112 3769㎡, 동호 516-113 3769㎡, 동호 516-114 3769㎡, 동호 516-115 3769㎡, 동호 516-116 3769㎡, 동호 516-117 3769㎡, 동호 516-118 3769㎡, 동호 516-119 3769㎡, 동호 516-120 3769㎡, 동호 516-121 3769㎡, 동호 516-122 3769㎡, 동호 516-123 3769㎡, 동호 516-124 3769㎡, 동호 516-125 3769㎡, 동호 516-126 3769㎡, 동호 516-127 3769㎡, 동호 516-128 3769㎡, 동호 516-129 3769㎡, 동호 516-130 3769㎡, 동호 516-131 3769㎡, 동호 516-132 3769㎡, 동호 516-133 3769㎡, 동호 516-134 3769㎡, 동호 516-135 3769㎡, 동호 516-136 3769㎡, 동호 516-137 3769㎡, 동호 516-138 3769㎡, 동호 516-139 3769㎡, 동호 516-140 3769㎡, 동호 516-141 3769㎡, 동호 516-142 3769㎡, 동호 516-143 3769㎡, 동호 516-144 3769㎡, 동호 516-145 3769㎡, 동호 516-146 3769㎡, 동호 516-147 3769㎡, 동호 516-148 3769㎡, 동호 516-149 3769㎡, 동호 516-150 3769㎡, 동호 516-151 3769㎡, 동호 516-152 3769㎡, 동호 516-153 3769㎡, 동호 516-154 3769㎡, 동호 516-155 3769㎡, 동호 516-156 3769㎡, 동호 516-157 3769㎡, 동호 516-158 3769㎡, 동호 516-159 3769㎡, 동호 516-160 3769㎡, 동호 516-161 3769㎡, 동호 516-162 3769㎡, 동호 516-163 3769㎡, 동호 516-164 3769㎡, 동호 516-165 3769㎡, 동호 516-166 3769㎡, 동호 516-167 3769㎡, 동호 516-168 3769㎡, 동호 516-169 3769㎡, 동호 516-170 3769㎡, 동호 516-171 3769㎡, 동호 516-172 3769㎡, 동호 516-173 3769㎡, 동호 516-174 3769㎡, 동호 516-175 3769㎡, 동호 516-176 3769㎡, 동호 516-177 3769㎡, 동호 516-178 3769㎡, 동호 516-179 3769㎡, 동호 516-180 3769㎡, 동호 516-181 3769㎡, 동호 516-182 3769㎡, 동호 516-183 3769㎡, 동호 516-184 3769㎡, 동호 516-185 3769㎡, 동호 516-186 3769㎡, 동호 516-187 3769㎡, 동호 516-188 3769㎡, 동호 516-189 3769㎡, 동호 516-190 3769㎡, 동호 516-191 3769㎡, 동호 516-192 3769㎡, 동호 516-193 3769㎡, 동호 516-194 3769㎡, 동호 516-195 3769㎡, 동호 516-196 3769㎡, 동호 516-197 3769㎡, 동호 516-198 3769㎡, 동호 516-199 3769㎡, 동호 516-200 3769㎡, 동호 516-201 3769㎡, 동호 516-202 3769㎡, 동호 516-203 3769㎡, 동호 516-204 3769㎡, 동호 516-205 3769㎡, 동호 516-206 3769㎡, 동호 516-207 3769㎡, 동호 516-208 3769㎡, 동호 516-209 3769㎡, 동호 516-210 3769㎡, 동호 516-211 3769㎡, 동호 516-212 3769㎡, 동호 516-213 3769㎡, 동호 516-214 3769㎡, 동호 516-215 3769㎡, 동호 516-216 3769㎡, 동호 516-217 3769㎡, 동호 516-218 3769㎡, 동호 516-219 3769㎡, 동호 516-220 3769㎡, 동호 516-221 3769㎡, 동호 516-222 3769㎡, 동호 516-223 3769㎡, 동호 516-224 3769㎡, 동호 516-225 3769㎡, 동호 516-226 3769㎡, 동호 516-227 3769㎡, 동호 516-228 3769㎡, 동호 516-229 3769㎡, 동호 516-230 3769㎡, 동호 516-231 3769㎡, 동호 516-232 3769㎡, 동호 516-233 3769㎡, 동호 516-234 3769㎡, 동호 516-235 3769㎡, 동호 516-236 3769㎡, 동호 516-237 3769㎡, 동호 516-238 3769㎡, 동호 516-239 3769㎡, 동호 516-240 3769㎡, 동호 516-241 3769㎡, 동호 516-242 3769㎡, 동호 516-243 3769㎡, 동호 516-244 3769㎡, 동호 516-245 3769㎡, 동호 516-246 3769㎡, 동호 516-247 3769㎡, 동호 516-248 3769㎡, 동호 516-249 3769㎡, 동호 516-250 3769㎡, 동호 516-251 3769㎡, 동호 516-252 3769㎡, 동호 516-253 3769㎡, 동호 516-254 3769㎡, 동호 516-255 3769㎡, 동호 516-256 3769㎡, 동호 516-257 3769㎡, 동호 516-258 3769㎡, 동호 516-259 3769㎡, 동호 516-260 3769㎡, 동호 516-261 3769㎡, 동호 516-262 3769㎡, 동호 516-263 3769㎡, 동호 516-264 3769㎡, 동호 516-265 3769㎡, 동호 516-266 3769㎡, 동호 516-267 3769㎡, 동호 516-268 3769㎡, 동호 516-269 3769㎡, 동호 516-270 3769㎡, 동호 516-271 3769㎡, 동호 516-272 3769㎡, 동호 516-273 3769㎡, 동호 516-274 3769㎡, 동호 516-275 3769㎡, 동호 516-276 3769㎡, 동호 516-277 3769㎡, 동호 516-278 3769㎡, 동호 516-279 3769㎡, 동호 516-280 3769㎡, 동호 516-281 3769㎡, 동호 516-282 3769㎡, 동호 516-283 3769㎡, 동호 516-284 3769㎡, 동호 516-285 3769㎡, 동호 516-286 3769㎡, 동호 516-287 3769㎡, 동호 516-288 3769㎡, 동호 516-28